

A Study on the Cultural Foundation's Theater Support Project for the Revitalization of K-theater

-Focus on the Seoul and Busan Cultural Foundation-

Yi, Joo-young

Instructo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Korea
tolerance211@naver.com

Abstract

Objectives The study is to discuss the theater supporting business of public institutions. Therefore, the study sets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which has been showing a model case in supporting business as analyzing agency of theater supporting business. In order to deepen the discussion over such supporting business of culture foundation, the study focuses Busan area where practices theatrical culture through hosting various musical festivals locally and internationally as well as executes bouncy activities of Korea's major drama companies such as Yeonhuidan Street Theatre Troup.

Methods In the 2nd chapter, in order to understand culture foundation, characteristics and features of general culture foundation and culture foundation in Seoul and Busan metropolitan areas as well as supporting business of artistic creation are overall examined and then, theater support business that each culture foundation is examined in the 3rd and 4th chapters. Finally in the 5th chapter, gives the entire picture of meaning and limitation of theater supporting business that each culture foundation drives currently and is finished by presenting the direction of theater supporting business in culture foundation to go.

Conclusions Unless a play is a commercial play, it is difficult to survive only by audience income. Therefore, the Seoul Cultural Foundation and the Busan Cultural Foundation are providing systematic support to various art genres, creative fields, and emerging fields as well as theater. In order for these support projects to succeed, the execution power of the beneficiaries who received the support is necessary. And for this, a solid implementation organization must be formed within the theater world.

Keywords Seoul Culture Foundation, Busan Culture Foundation, play, Theater support, Self-sustaining, Driving force

<https://www.ijkculture.com>, DOI: doi.org/10.23159/IJKC.2023.12.312.006

Received: Nov. 30. 2023 ; Reviewed: Dec. 10. 2023 ; Accepted: Dec. 15. 2023

pISSN 2951-2808 eISSN 2951-2883

K-연극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단의 연극 지원 사업 연구

- 서울·부산문화재단을 중심으로 -

이주영

목 차

1. 지원, 보호 혹은 미끼
 2. 왜소함의 혐의와 재단의 분달
 3. 지원, 수혜와 곤경
 4. 연극지원의 향방, 그리고 부산연극, K-연극의 활성화 방안
-

1. 지원, 보호 혹은 미끼

일찍이 미국의 극작가 아서 밀러(Arthur Miller)는 “국가가 공연에 지원금을 대는 곳에서는 몸에 밴 검열 충동이 억제되어야 한다.”라고 했다.¹ 여기서의 검열 충동 주체는 지원하는 측, 즉 공공기관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검열이 실행화되어 그것을 직접 당하고 목도한 예술인들은 지원 앞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내적 검열의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지원은 주고받음의 양상으로 인해 수직관계에서 오는 권력화에 빠지기 쉬우며 이러한 지원의 메커니즘이 작동되는 순간, 지원은 지지와 보호에서 억제되어야 할 ‘검열 충동’으로 빠르게 이동한다. 보호와 지지의 위장술로 끈질기게 늘어붙어 있는 ‘지원-검열’이라는 불온한 동거는 믿을 수 없겠지만, 지금/여기의 연극장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국가의 ‘지원-검열’의 시발은 일제 강점기 때부터였다. 일제시기는 식민자와 피식민자라는 위계화된 권력 질서로 인해 검열자/경찰(警察)하는 자/일본 - 피검열자/경찰받는 자/조

1 아서 밀러, 김지영 옮김(2010). 공적으로 지원받는 연극의 의무, 공연과 리뷰, 68, 222.

선의 구도가 강제되었다.² 해방은 일제 강점기 때의 검열을 극복하지(beyond) 못하고 이어받는다(after). 극예술 전반에 대한 국가의 검열은 “8·15해방의 가능성이 냉전체제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서 분단과 전쟁 그리고 독재의 시간에서 매우 위력적인 힘으로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예술의 통제 장치로 기능하였다.³ 마침내 1988년의 극단 바탕골의 <매춘> 사건이 터지면서 국가의 검열은 일단락 정리되었다. 그런데 연극을 향한 국가기관의 검열이란 횡포가 다시 부활하였고, 그 폭력적 행위에는 연극에 대한 지원 제도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매춘> 사건을 약 40년 전후로 해서 검열은 시발과 부활을 맞이한 셈이다.

부활한 검열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2015서울연극제 대관 심사 탈락, 2015창작산실 사태, 2015서울국제공연예술제 팝업씨어터 사건, 2016년 『공연과이론』 지원금 탈락 등 문예위는 버라이어티하며 폭력적인 검열 활동으로 대한민국 연극장을 어둡게 하였다.⁴ 특히 창작산실 검열 문제에 모르쇠로 일관하던 문예위는 2015년 창작산실 심의위원의 녹취록이 검열의 증거로 세상 밖으로 드러나고 이를 TV미디어가 적극적으로 보도하면서 검열을 시인했으며, 더 나아가 검열의 지속 가능성을 넘지시 선언하였다.⁵ 그리고 마침내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면서 ‘문예위는 예술계의 공식 검열 기관’임을 증명하였다.⁶ 검열 충동이 억제되지 못하고 국가 기관에 의해 현실화 및 실행화된 이 시점, 연극계에서는 이 검열 폭력과 블랙리스트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투쟁하고 있으며,⁷ 더 나아가 문화계를 난도질한 현 정부를 향해 시국선언을 하였다.⁸

2 손지연(2007). 식민지 조선에서의 검열의 사상과 방법: 검열 자료집 구축 과정을 통하여. 한국문화연구, 32, 130. 특히 중일전쟁 발발 이후 제국일본의 자장 아래 있던 모든 유형·무형의 가치들은 전쟁이테올로기로 집결되었고, 이에 반드시 일제의 검열망을 통과해야만 했다. 유·무형의 가치를 동시에 갖춘 연극에 대한 제국의 입장은 “소극적 단속에서 적극적 통제”로, 네거티브한 방식인 배제하는 검열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통제(control)하는 검열로 그 수위와 강도를 높였다. 박영정(2004). 법으로 본 일제강점기 연극영화 통제정책. 문화정책논총, 16, 245.

3 이승희(2016). 검열코스프레. 연극평론, 80, 24.

4 이주영(2016). 죽음 뒤 부활의 가능성: <연극생존백서>. TTIS, 7.

5 2015년 10월 7일에 있었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박명진 문예위원장은 ‘사회적 논란에 대한 예방’과 ‘공공기관의 의무’를 내세워 검열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면서 자연스럽게 검열을 시인했다. 한선교 의원 또한 “시민의 예산지원이 이뤄지는 작품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우려가 있다면 지원 철회가 마땅하다.”라고 발언하면 검열 지지하였다.

6 김미도(2017). 블랙리스트 실행 기관은 문예위다. 시사in, 489.

7 한국의 대표적인 연극잡지 『연극평론』에서는 지난 2015년 겨울호 특집으로 검열을 주제로 한 특집기사가 게재되었고, 연속적으로 그 다음호인 2016년 봄호의 이슈 쪽지에 한차례 더 검열 원고를 실었다. 평론 집단뿐만 아니라 공연 집단에서도 2016년 6월 9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개의 극단이 검열을 주제로 릴레이 공연을 하였다.

검열에 대한 연극계의 전방위적 저항과 규탄보다 더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났다. 창작산실 사태의 핵심 작이었던, 문예위로부터 검열을 받아 탈락과 지원금 강제 포기를 당했던 박근혜 작·연출의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가 문예위와 같은 공공기관인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남산예술센터에서 공연되었다는 사실이다. 한 작품을 두고 두 공공기관의 다른 행보가 흥미롭다. 한국의 연극은 그 시작부터 자금난에 허덕였고, 100년이 지난 지금도 경제적 곤란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공공기관의 지원은 연극인들에게 예술과 생활을 동시에 지속 가능케 하는 실질적 힘이 된다. 이러한 연극인들의 생존의 절박함에 문예위는 지원을 미끼로 연극을 통제하고 있으며, 서울문화재단은 지원을 건강한 제도로 운용하며 연극인들의 예술 활동과 삶의 생존을 보호하고 지지하며 응원하고 있다.

이 글의 목표는 공공기관의 예술 지원 사업, 특히 연극 지원 사업을 중심에 두고 공공기관이 예술 지원 사업에 있어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보는 데 있다. 이에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문예위를 중심에 두고 기술해야 함이 적절하나, 일련의 검열 사태로 문예위는 그 기능을 상실하였기에 분석의 층위에서 배제한다. 반면 본고에서는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공연 지원에서 보듯 문예위와 다른 행보를 걸으며 지원의 건강한 사례를 보여준 서울문화재단을 연극 지원 사업의 분석 기관으로 설정한다. 또한 문화재단의 연극 지원 사업에 대한 논의를 두텁게 하기 위해 서울 다음으로 지역연극제 및 국제연극제 등 다양한 연극축제 개최, 그리고 연희단 거리패와 같은 대한민국의 주요 극단의 활동으로 연극 문화를 활발히 실천하고 있는 부산 지역을 논의의 시선에 두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서울문화재단과 부산문화재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극 지원 사업을 집중 논의함으로써 주로 학위논문 주제로 채택되고 있는 기왕의 연구들, 국내·외 문화재단과의 비교 연구,⁹ 문화재단의 신진예술가 지원 사업에 전착한 연구,¹⁰ 서울과 부산문화재단에서 진행되는 예술 지원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연구¹¹ 등과 차별점을 둔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8 헤럴드경제(2016). 연극평론가 55인 시국선언 “문화계 난도질한 박 대통령 하야하라”.

9 박은애(2008). 국내문화재단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 이은미(2009). 국내·외 문화재단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10 강보배(2013). 신진예술가 지원사업의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서울과 광역시문화재단의 공연예술분야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하상지(2015). 광역자치단체 문화재단의 예술가 지원사업 분석: 신진예술가 지원사업을 사례로.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11 김보름(2006). 공공부분에서의 문화예술 지원에 관한 연구: 서울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일택(2012). 문화재단의 문화예술성 지원 사업 개선 방안 연구: 부산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문화재단에 대한 이해를 위해 문화재단과 서울·부산 문화재단의 성격 및 특징, 그리고 예술 창작 지원사업 전반을 살핀 뒤, 3장과 4장에서는 각 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극 지원 사업을 분석한다. 끝으로 5장에서는 각 문화재단에서 펼치고 있는 연극 지원 사업의 의의와 한계를 밝히면서 문화재단에서의 연극 지원 사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2. 왜소함의 혐의와 재단의 분발

문화재단은 기본적으로 문화예술 분야를 지원하는 비영리조직으로, 정부나 기업의 관심 및 지원이 닿지 않는 틈새분야를 지원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과 공공복리 향상에 기여한다.¹² 문화재단은 크게 세 유형으로 나뉘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1〉 문화재단 유형(강조, 인용자)¹³

분류	설립주체	특징	기금의 조성	의사결정
기업 문화재단	기업	기금을 제공하는 기업과 법률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가짐	기업의 증여와 정기적인 기부	기업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결정
특별법 문화재단	정부	정부차원에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정부지원재단	정부지원, 문예진흥기금 등의 확보	조직체계에 의한 의사 결정
지역 문화재단	지역사회 (정부, 개인)	특정지역의 문화, 예술 등 기타 자선활동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적재단	많은 기부자들로부터 보조를 받아 운영되며 전액세액 공제됨	지역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이사회가 결정

기업문화재단은 문화, 예술, 교육 등의 자선사업을 하는 재단으로 대표적인 예로 삼성문화재단이 있으며, 특별법문화재단은 문화와 예술 진흥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지원 문화재단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¹⁴ 끝으로 지역문화재단은 설

¹² 김경욱(2007). 문화재단: 아름다운 문화 거버넌스를 위하여. 서울: 논형.; 윤선미(2003). 한국의 문화재단 현황 및 특성에 관한 연구: 기업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¹³ 윤선미(2003). 16.

¹⁴ 박은애(2008). 15-16.

립주체가 정부와 개인으로 나뉘는데,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 서울, 부산, 경기 등의 각 지역의 문화재단을 들 수 있으며, 후자의 대표적인 예로 새얼문화재단, 방일영문화재단 등을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전자에 해당하는 지역문화재단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연극 지원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기본적으로 문화재단 앞에 지역명이 붙으면 재단의 비전과 가치는 “특정지역의 문화, 예술”을 강조한 로컬성을 띠게 된다. 그리고 이 로컬성이 주는 고립화·협소화의 혐의 내지 오해를 거둬내기 위해 의사결정에 있어 “지역의 다양성”을 강조함으로써 지역문화재단은 보편성을 획득한다. 다양성 앞의 ‘지역’이란 단어가 보편성과 유리되어 보이는 듯하나, 여기서의 방점은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예술 전반의 전문가들에 찍혀 있다. 이를 예술 지원 부분으로 옮겨 논의하면 각 지역마다 있는 공통된 예술 장르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해당 지역의 여러 장르의 전문 예술인이 활용되는 것이다.¹⁵

서울과 부산 문화재단에서도 미술, 음악, 연극, 다원 등의 여러 장르들에 대한 활발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각 재단의 예산 및 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5 그런데 같은 지역문화재단임에도 불구하고 이 차별성과 보편성은 공존하지는 않는다.

〈표2〉 서울문화재단과 부산문화재단의 비전 및 가치

재단	비전	가치
서울문화재단	예술로 활기찬 서울, 문화로 행복한 시민	- 창조적 다양성 - 예술적 공감과 창의성 - 문화적으로 살기 좋음 - 지속 가능한 혁신
부산문화재단	일상에 스미는 문화의 새 물결, 상상력 넘치는 해양문화도시	- 해양 - 미래 - 순환

〈표2〉는 서울문화재단과 부산문화재단의 비전 및 가치이다. 재단의 방향성을 제시한 비전과 가치 항목에서 서울문화재단의 경우는 서울이란 지역적 특수성을 파악하기 힘든 반면, 부산문화재단의 경우는 ‘해양’의 단어에서 파악되듯 지역적 특수성을 강조한다. 이 지역적 특수성은 타 지역과의 변별력, 생존전략, 재단의 전시효과 등 여러 순기능이 있는 반면, 자발적 지방화의 우려도 노정된다. 또한 지역문화재단의 지원프로그램에서 이 지역적 특수성이 인적 지원 외에 어떤 항목과 긴밀히 접속하는지도 살펴볼 일이다. 서울문화재단[www.sfac.or.kr]과 부산문화재단[www.bsfc.or.kr] 홈페이지 참조.

〈표3〉 2015년도 서울문화재단과 부산문화재단의 집행예산 및 지원 사업명¹⁶

지역문화재단	집행예산	예술창작지원 사업명	지원 건수	관객수
서울문화재단	754억원	- 예술창작지원 - 유망예술지원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 공연단체다년간지원 - 예술축제지원	736건	737,429명
부산문화재단	256억원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 청년문화집중지원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440건 (개인+단체)	375,227명

서울문화재단과 부산문화재단의 예술창작지원 분야 중에서 비슷한 성격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예술창작지원(서울)≒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부산), 유망예술지원(서울)≒청년문화집중지원(부산),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서울/부산) 세 항목이며, 서울문화재단은 여기에 공연단체다년간지원과 예술축제지원 등 2개의 지원 사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서울문화재단과 부산문화재단의 규모는 집행예산을 기준으로 보자면 세 배 가까운 차이를 보인다. 하여, 부산문화재단(3건)에게 서울문화재단(5건)과 비슷한 지원 사업 건수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과의 비교에서 집행예산의 약 세 배의 낙차란 문화적 규모의 왜소함을 드러냈음에도, 부산문화재단은 지원 건수와 관람 관객수에서 나름의 선방을 보여주고 있다.¹⁷ 부산문화재단에서 보여준 이 분발의 이유는 전체 집행예산 중 예술지원 부분의 큰 비중에서 찾을 수 있다. 그만큼 문화재단 사업에 있어 예술지원 분야는 핵심 사업이며 후술하겠지만 그 중 연극 지원은 타 장르의 지원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6 〈표3〉의 내용은 서울문화재단과 부산문화재단의 2015년도 사업 기준이며, 각 재단이 예술작품 창작을 위해 예술가/단체들에게 지원하는 사업명만을 정리하였다. 출판 지원 사업명 및 기업과의 연계 활성화 지원 사업명 등은 제외한다. 단, 부산문화재단의 경우, ‘학예이론도서발간지원’, ‘지역출판문화 및 작은도서관 지원’ 등, 도서 및 출판 지원 사업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항목 안에 문학 장르가 포함되어 있다. 단, 이 문학 장르 지원내용에는 단순 출판 지원만이 아닌, 창작발간활동 및 문학행사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참조.

17 부산 지역이 여러 연극 축제를 개최되고 있음에도 축제 관련 지원사업이 없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3. 지원, 수혜와 곤경

3.1. 외적 수혜와 내적 곤경

서울문화재단과 부산문화재단의 세 배 차의 집행예산 간극은 지원 사업 형태로 극복된다.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창작지원’과 부산문화재단의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이란 이름으로 예술창작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는 두 재단의 지원사업은 각 지역의 “우수하고 발전가능성 있는 작품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예술가와 단체의 창작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각 지역의 “다양한 예술활동을 탄탄하게 지원”하는 문화재단의 역점 사업이다. 특히 연극은 이 지원 사업의 수혜 장르이다.

〈표4〉 2015년도 서울문화재단과 부산문화재단의 예술창작 지원 사업

	서울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사업명	예술창작지원: 예술작품지원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공통 지원 장르	연극, 음악, 무용, 전통, 다원	
공통 장르 총 지원 건수	270건	131건
공통 장르 총 지원 금액	4,148,000,000원	1,277,000,000원
연극 지원 총 건수	48건 ¹⁸	21건 ¹⁹
연극 지원 총 금액	1,223,000,000원	255,000,000원

예술창작 관련 지원 사업의 다섯 개 예술 장르 중 연극은 지원 건수와 지원 금액을 종합하면 문화재단으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는 장르이다. 서울문화재단의 경우는 연극의 선정 비율이 다원예술 다음으로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결정액은 다섯 개 장르 중 가장 높다. 부산문화재단의 경우도 다섯 개의 장르 중 71건이 선정된 음악 다음으로 연극의 선정 건수(21 건)가 높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음악이 연극과 비교해 세 배 이상 차의 선정 건수를 보임에도 지원 금액은 2분의 1밖에 차이가 나질 않는다.²⁰

다른 지원 장르에 비해 연극 장르가 지원 수치 상 수혜를 받는 데에는 연극이란 장르적

¹⁸ 무용 43건, 음악 73건, 전통 78건, 다원 28건이다.

¹⁹ 무용 17건, 음악 71건, 전통 16건, 다원 6건이다.

²⁰ 부산문화재단의 음악 장르의 총 지원액은 506,000,000원이다.

특수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연극은 한 편의 결과물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작가, 연출, 배우, 스텝 등 최소한의 제작 구성원이 필요하며 또한 공연 기간 전에 연습 기간도 가져야 한다. 연습 기간은 시간의 문제에 한정하지 않는다. 이는 공연장뿐 아니라 연습장소의 요구도 의미한다. 서울문화재단은 선정된 연극 장르 한 건 당 평균 약 2천 5백만 원을 지원하며, 부산문화재단은 선정된 연극 장르 한 건 당 평균 약 1천 2백만 원을 지원하는데, 앞에 언급한 사항을 종합하여 총 제작비를 산출한다면 연극 장르 한 건 당 지원금액이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다. 심지어 부산의 경우는 서울에 비해 반 이하의 지원금을 받기에 제작의 어려움이 쉬이 예상되는 바이다. 문화재단은 지원의 딜레마에 봉착한다. 연극 제작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문화재단이 연극 장르에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제공하면 좋겠으나 각 장르 당 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기에 추가 지원은 실현 불가능에 가깝다.

지원의 형평성이란 딜레마를 안고 있는 문화재단이지만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연극은 재단측으로부터 수혜를 받는 장르였다. 예를 들어, 2015년 상반기 메르스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전염병은 즉각적으로 공연예술을 위협했다. 전염병에 취약한 공공장소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다. 상반기 공연장은 한산했으며, 이 한산함은 자본의 곤궁으로 이어져 공연예술인들의 삶을 힘들게 했다. 이에 서울문화재단은 “2015년 상반기 메르스 사태로 침체되고 위축된 예술계의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긴급 편성된 추경예산으로 운영된 사업으로 예술창작활동에 참여하는 예술가의 인건비를 지원”하였다. 총 지원금액은 1,388,000,000원이며 연극 장르가 다섯 개의 예술 중 491,000,000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는다.²¹ 예술창작활동지원에 대처하는 ‘서울’문화재단의 기민함이 돋보인 사업이었다. 다음으로 살펴볼 지원 항목은 신진예술가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다.

〈표5〉 2015년도 서울문화재단과 부산문화재단의 신진예술 지원 사업

	서울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사업명	유망예술지원	차세대 예술단체 육성사업 ²²
공통 지원 장르	연극, 무용, 음악	
공통 장르 총 지원 금액	166,200,000원	30,000,000원
공통 장르 총 지원 건수	10건	6건
연극 지원 총 건수	3건 ²³	2건
연극 지원 총 금액	51,300,000원 ²⁴	10,000,000원 ²⁵

21 무용 111백만 원, 음악 151백만 원, 전통 123백만 원, 다원 21백만 원이다.

신진예술 성격의 지원사업은 예술창작 지원사업과 달리 각 문화재단 모두 비교적 균등한 비율로 지원을 집행하였다. 그런데 신진예술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문화재단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서울문화재단은 “신작 또는 재창작 작품으로 데뷔 10년 이내의 연출가 개인 및 단체”로, 부산문화재단은 “단체 구성원의 연령이 모두 만 35세 이하로 구성된 공연예술단체(개인 지원불가)”로 지원대상 범위를 한정하였다. 신진·유망·젊음·차세대의 방점이 서울문화재단은 경력에, 부산문화재단은 연령에 찍혀있는 셈이다.

또한 부산문화재단은 단체 구성원 모두의 연령을 제한함으로써 신진에 대한 잣대를 엄격히 하였다. 부산문화재단의 이 엄격한 차세대에 대한 기준은 지원금을 신청함에 있어 여러 혼선과 수고를 제거하는 장점은 있겠으나, 예술 시작의 출발이 모두가 동일하지 않음에도 같은 선상에 강제 나열하는 인상을 준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개의 연극 단체(혹은 극단)는 개인이 아닌 다수의 인원이 모여 만들어질 터인데, 집단 모두의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장르적 이해와 배려가 다소 고려되지 않아 보인다.

앞서 살펴본 두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공연단체의 역량을 강하고 우수 작품의 제작과 발표를 촉진하여 공연장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발된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두 문화재단에서 비슷한 형태로 진행한 지원사업이다.²⁶ 물론 지원 건수와 지급액에 있어 자금의 규모로 인해 차이가 발생하나 두 문화재단 모두 비슷한 형태의 취지와 방식으로 본 사업을 진행하였다.²⁷

22 시범사업이다.

23 무용 3건, 음악 4건이다.

24 무용 57,900,000원, 음악 57,000,000원이다.

25 차등 지원이 아닌 건수 당 각 5,000,000원 균등 지원한다.

26 서울문화재단, 앞의 책, 29.

27 <표6> 2015년도 서울문화재단과 부산문화재단의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서울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지원금 총액	2,843,000,000원	710,000,000원
총 지원 건수	33개	6개
공연장 수	21곳	6곳
연극 선정 건수	11건	3건

이밖에 부산문화재단에서는 신진예술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도움닫기 국내연계지원프로그램’, ‘도움닫기 해외연계지원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전자의 연극 지원의 경우, 예술창작지원의 성격보다는 서울아트마켓 홍보부스 운영비가 지원내용에 주를 이루며, 예술창작에 대한 지원이 있더라도 일회성 성격이 강한 쇼케이스에 대한 지원이었다. 후자의 경우 문화예술 전분야로 지원분야를 열어두었으나, 연극 장르는 선정되지 않았다.

「연극데이트」, 연극을 웹툰으로 해석한 「웹툰」, 관객들의 응모한 평을 선정하여 게재하는 「객석다이러리」 등 총 10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섹션 또한 변별점을 갖는다. 고르고 다채로운 섹션 구성과 정기적인 원고 업데이트 덕인지, 2015년의 총 페이지뷰는 618,687건에 달한다.²⁸ 단일장르의 웹진임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페이지뷰 수치이다.

『연극인』 섹션 중 작품에 대한 관객의 즉각적이면서 직접적인 반응을 볼 수 있는 페이지는 「꽃점과 한줄평」이다. 이 섹션에서는 평론가, 연출가, 극작가, 배우 등 연극계의 전문가들이 연극 관람 후에 작품에 대해 기록한 한줄평과 꽃점, 일종의 별점을 볼 수 있다. 「꽃점과 한줄평」은 『연극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섹션으로 2015년 한 해 동안의 페이지뷰가 103,639 건이며²⁹ 『연극인』 전체 섹션 중 가장 많은 페이지뷰를 기록하였다. 「꽃점과 한줄평」은 연극 전문가들의 평과 반응만을 보는 코너는 아니다. 해당 작품을 본 관객들이 직접 꽃점과 한줄평을 등록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연극인과 관객과의 소통이 꽤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웹진 『연극인』은 공연 제작을 위한 문화재단의 직접 지원은 아니다. 하지만 연극 제작 주체와 관객들의 소통창구로 적극 활용됨으로써 공연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대중들의 연극에 대한 관심을 형성케 한다. 부산문화재단의 연극에 대한 간접 지원은 리뷰에 집중되어 있다.

부산문화재단은 서울문화재단처럼 연극 장르만을 위한 단일 사이트는 운용하지 않고 있다. 대신 부산연극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대중들은 2011년 7월 1호 발행을 시작으로 19호까지(2015년 12월 발행) 발행된 잡지 『공감 그리고』가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어 그 안에 수록된 연극평론을 손쉽게 다운받아 읽을 수 있다. 『연극인』과의 차이점은 필자구성에 있다. 『연극인』이 주로 30대의 젊은 공연칼럼니스트 혹은 젊은 연극인 집단에 속하는 극작가, 연출가 등을 필자로 구성하고 있다면, 『공감 그리고』는 대학교수, 연극평론가, 중견 극작가 및 연출가 등을 필진으로 섭외하고 있다.³⁰ 『공감 그리고』가 비록 『연극인』

28 『연극인』 담당자로부터 확인.

29 『연극인』 담당자로부터 확인.

30 <표7> 『공감 그리고』 필자 구성

호수	필자	직책
1	허은 이성규 정봉석	- 부산국제연극제 집행위원장 - 연출가, 부두연극단/액티스소극장 대표 - 동아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연극평론가
2	정봉석	1호와 동일

처럼 연극 장르만을 위한 사이트도 아니고, 사이트 활성화의 흔적도 미미하고 소통창구로서의 역할도 미흡해보이지만 적게나마 부산연극에 대한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연극에 대한 지원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4. 연극 지원의 향방, 그리고 부산연극, K-연극의 활성화 방안

연극은 지원을 필요로 한다. 상업극이 아닌 이상 관객수입만으로는 생존이 힘들다. 하여, 서울문화재단과 부산문화재단은 미술, 음악, 연극, 다원 등 다양한 예술 장르와 창작 분야, 신진 분야 등 다층적인 지원 형태를 통해 활발하고 체계적으로 예술 및 연극 분야에 대해 지지와 응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부산문화재단의 경우는 서울문화재단과 비교하여 총 사업 집행예산이 세 배의 차이를 보임에도 지원 건수와 관람 관객수면에서 나름의 선방을 보여주고 있다.

두 문화재단의 연극 지원은 다른 장르에 비해 적게나마 수혜를 받고 있다. 서울문화재단의 경우에는 연극의 지원 결정액은 타 장르보다 높으며, 부산문화재단의 경우도 지원 건수와 지원 결정액 면에서 연극은 우위를 차지하는 장르다. 그렇다고 이러한 연극의 지원금 수혜 현상이 마냥 긍정적될 수만은 없다. 문화재단 측의 지원에 대한 딜레마일 터인데, 단체로 움직이는 연극의 장르적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지원금이 풍족한 편은 아니다. 허나, 타 장르와의 지원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문화재단의 입장에서도 총 사업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 이상 연극 장르에 대한 지원금 증액은 좀처럼 낙관적이지는 않다.

3	김동석	미기재
4,5	김지용	극작가, 연출가
6	김남석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연극평론가
9	심상교	부산교육대학교 국어교육학과 교수
11	김영희	부경대학교 강사, 연극평론가
12	김남석	6호와 동일
13	김문홍	극작가, 연극평론가, 부산공연사연구소 소장
14	이윤택	극작가, 연출가,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15	김세일	배우, 연출가, 국제교류 코디네이터
16	김문홍	13호와 동일
17	정봉석	1호와 동일

문화재단 측의 지원의 딜레마에도 불구하고 각 문화재단은 예술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철저한 계획과 기획력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문화재단은 국가 비상상태 때도 예술과 연극의 안위를 걱정했으며, 민첩한 태도로 연극을 메르스란 위기로부터 보호해주었다. 그리고 문화재단은 연극에게 자본이란 직접적 지원 외에 연극 장르만의 단일사이트를 개설하여 연극인과 관객의 소통창구를 마련해주고 비록 적은 부분이나마 다양한 필자들의 연극평을 연극 관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서울문화재단과 부산문화재단의 지원 사업을 펼쳐보았다. 그런데 웬지, 열심히 분발한 모습을 보임에도 부산문화재단의 지원 사업은 로컬이란 왜소함의 혐의 때문인지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사업과 비교해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 메르스 사태 때도 그러했고, 인터넷 상의 소통창구 형성에서도 그러하다. 이러한 아쉬움과 이에 대한 극복은 향후 문화재단 가야 할 방향과 연결된다. 물론 다른 지역 문화재단의 예술지원 사업도 추가적으로 살핀다면 좀 더 견고한 방향성이 제시될 수 있을 터이나, 이에 대해서는 다른 지면을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서울과 부산의 문화재단은 지속적으로 예술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지원을 받은 수혜자의 실행력이다. 추진력 있게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견고하게 연결된 조직 및 블록이 형성되어야 한다. 서울에는 대학로란 상징적이며 거대단위의 연극문화지구가 있어 이곳으로 연극과 연극인, 그리고 관객들이 모이고 그 안에서 연극에 대한 담론을 형성해낸다. 대학로에서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서울연극제 등과 같은 각종 연극축제가 관객들의 활발한 호응을 얻으며 지속되고 있으며, 때로 연극에 대한 공공기관의 폭력에 맞서 싸우기 위해 많은 연극인들이 대학로에 모여 집단 토론을 하고 집회를 벌인다. 물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탈대학로에 대한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리기는 하지만, 여전히 대학로는 서울에서 연극의 메카로서 막강한 상징력을 발휘한다.

반면 부산은 연극을 대표하는 지역이 부재하다. 지역을 대표하는 연극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연극 공연장의 시설이 불충분한 상황이니,³¹ 어찌 보면 연극문화지구 형성은 조금 급해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부산의 연극메카 형성은 연극/인의 생존을 위해 진행되어야 한다. 문화재단의 지원을 통한 연극문화지구 형성의 방법은 옳지 않다. 지원 후 형성이 아닌 지원과 형성의 움직임이 같이 가야 한다. 부산에서의 연극문화지구 형성 과제, 방법론, 아울러 K-연극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안에 대한 연구는 후속 연구에서 다루기로 한다.

31 김남석(2015). 연극축제 공공성의 한계와 대안 부산연극제. 연극평론, 78, 21-22.

[References]

- Busan Cultural Foundation (2015). 2015 Busan Cultural Foundation Annual Report.
- Kim, Nam-seok (2015). The Limits of Publicity and Alternatives to the Busan Theater Festival. Theater Criticism, 78.
- Seoul Cultural Foundation (2015). 2015 Seoul Cultural Foundation Annual Report.
- Son, Ji-yeon (2007). Concepts and Methods of Censorship in Colonial Chosun Through Structural Process of the Censorship Documents. The Studies in Korean Literature, 32. Translated by Arthur Miller, Kim Ji-young (2010). Duty of publicly supported plays. Performance and Review, 68.
- Yi, Joo-young (2016). The possibility of revival after death: Theatrical Survival White Paper. webzine TTIS.
- Yoon, Sun-m (2003).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Cultural Foundations in Korea: Focusing on Corporate Cultural Foundations.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K-연극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단의 연극 지원 사업 연구 -서울·부산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이주영

한국교통대학교 교양대학 강사

한국어 요약

연구 목적 이 글의 목표는 현재 한국의 주요 공공기관에서 진행되는 연극 지원 사업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 글에서는 서울문화재단을 연극 지원 사업의 분석 기관으로 설정한다. 또한 문화재단의 연극 지원 사업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서울 다음으로, 지역연극제 및 국제연극제 등 다양한 연극축제 개최, 그리고 연희단 거리패와 같은 대한민국의 주요 극단의 활동으로 활발한 연극장 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부산 지역을 살펴보기로 한다.

연구 방법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문화재단과 서울·부산 문화재단의 성격 및 특징, 그리고 예술창작 지원 사업 전반을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각 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극 지원 사업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각 문화재단에서 펼치고 있는 연극 지원 사업의 의의와 한계를 밝히면서 문화재단에서의 연극 지원 사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로 한다.

결론 연극은 상업극이 아닌 이상 관객 수입만으로는 생존이 힘들다. 따라서 서울문화재단과 부산문화재단은 연극은 물론 여러 예술 장르와 창작 분야, 신진 분야에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받은 수혜자의 실행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연극계 내의 견고한 실행 조직이 형성되어야 한다.

핵심어 문화재단, 서울연극, 부산연극, 연극지원, 자생력, 추진력

이 논문은 2023년 11월 3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3년 12월 2일부터 2023년 12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3년 12월 15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